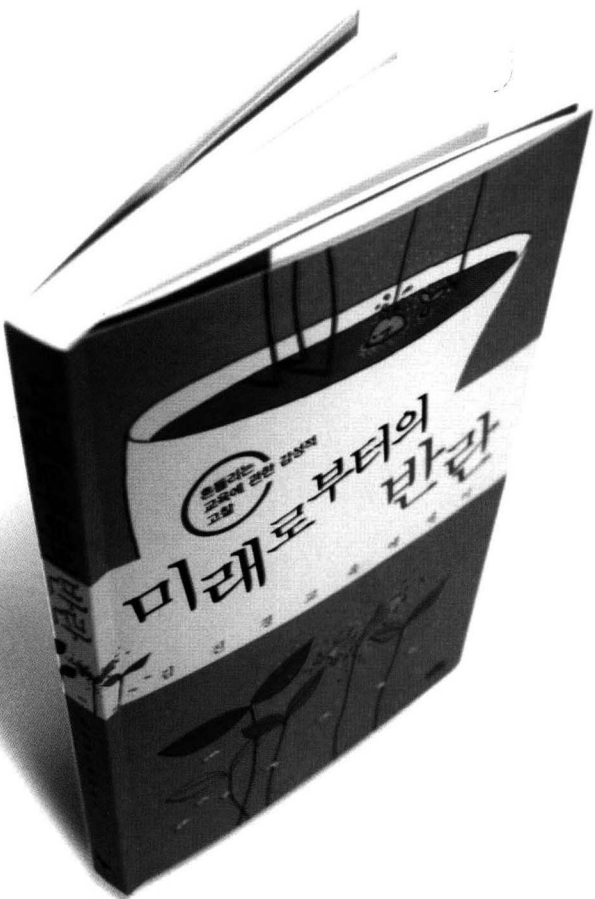


반란, 희망의 또 다른 이름



● **이 글을 쓴 조희정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고 《인텔리겐차》(공저), 《대담한 책임기》(공저) 등의 저자이다. 현재 문화기획 퍼슨웹(www.personweb.co.kr) 기획위원, 공간 PLUS(www.spaceplus.or.kr) 기획위원으로 활동중이다.

2004년부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 있다. 이름 하여 <공간PLUS>. '공간PLUS' 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언어와 지역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등등이 시도되고 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플러스(PLUS)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물망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을 즐겁게 생산해 내는 것이야말로 그 공간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사람과 사람이 '우정'을 나누기에 나이·지역·언어따위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공간은 일깨워준다.

어제는 우연히도 그 공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10대, 20대, 30대조차 (!)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이났다.

글을 쓰는 작가이고 싶다는 10대 친구,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는 10대 친구,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던 10대 친구와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의 형, 영화평론가·철학 공부·교사·농부까지 실로 다양한 장래 희망을 가진 10대 친구,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읽고 글 쓰고 싶을 때 글 쓰면서 게으르게 사는 게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좋다는 30대, 어려서의 꿈은 수학교사였지만 새로운 우연들과 만나며 장래 희망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는 30대, 자신을 스쳐가는 삶의 국면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기 위한 시선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 희망이라는 20대. 갑자기 꿈틀꿈틀 움직이는 에너지가 내 앞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미래'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희망을 뉘 놓고 듣다보니 어느덧 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이다. 유년기의 장래 희망은 항상 직업군과 관련되기 마련일 터. 내가 꿈꿔온 직업군은 '교사'였다. 단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 나라는 녀석이 얼마나 미련하고 게으른 녀석인가 짐작하시리라. 게다가 얼마 전 나의 별자리가 '가르침의 주간' 'The week of the teacher'임을 알고 나서는 "교사란 나의 숙명이었던가" 하며 운명(?)을 받아들인 기억이 난다.

교사가 어려서부터의 희망이었고 지금도 얼추 '교육'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으니 그러저럭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냐고 평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녀석만큼 조금씩

정체를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침묵하게 만드는, 골치 아픈 녀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 공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의 유치원 교육부터 매년 전국 70만 수험생과 그 가족까지 교육과 관련된 인구가 얼마인가? 학벌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문화자본이 아니라 '신체자본'의 성격을 띠게 된 학력의 막강한 힘은 또 어떤가? 게다가 '교실 붕괴'니 '학교 붕괴'니 '왕따'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는 그 혼란 속에서 그저 내 자식이 상처받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탈출하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교육보다 사회가 틀러먹었다"는 식의 공허한 거대 담론을 뱉어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쯤 되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공교육은 버릴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자식 마냥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아예 새로운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대안 교육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른다.

전교조 창단의 중추적 멤버이자 동화 《고양이 학교》 작가인 김진경 선생님의 최근 저작 《미래로부터의 반란-흔들리는 교육에 관한 감성적 고찰》이 반가운 이유는 그래서다. 공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반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 누구보다도 유연하게 사고하고 강인하게 실천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발언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교육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후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 즉 '지식 기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근대적 지식, 근대적 신체의 훈육에 골몰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지금의 학교가 '근본적'인 위기에 부딪혔다고 진단한다. 위기의 징표는 아이들과 교사의 의사소통이 막혔다는 현상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해결책은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근본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10대들의 특성에 주목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를 살아갈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10대 중 60퍼센트 이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변신은 필수 불가결하다. 학교의 느린 변화와는 달리, 이미 10대들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한 10대들의 변화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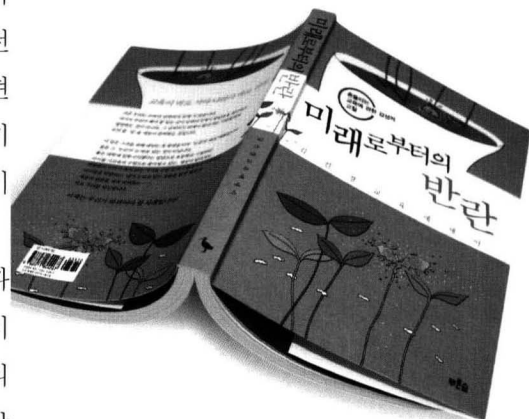
약된 것이 바로 '마니아 문화'다. 마니아 문화는 감성적 교류에 대한 욕구, 몸의 욕구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로부터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진로 교육'이다. 이때의 진로 교육은 폭좁고 규격화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직업 교육과 구별되어야 한다. 진로 교육은 어떤 하나의 직업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직업과 관련된 인생 행로 전체를 준비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즉, 10대들의 마니아 문화를 자신의 미래상과 구체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도록 학교 지식 전반에 새롭게 목적을 주고, 그 목적에 따라 학교 지식을 재구성하는 교육의 원리가 '진로 교육'인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 사회의 왕따 현상을 일본의 수입물로 파악하지 않고 소수 마니아 또래 문화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진단하는 것이나, 학력 사회를 우리 사회 상류층과 중산층 상류 집단 사이의 이익의 이합집산으로 분석하는 논의 등도 이 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제 교육은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학교, '학습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둔중한 공교육이 한발 한발을 어렵게 떼어놓도록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공교육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안교육에만 골몰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시도된다면 몸 가벼운 교육, 좀더 친근한 교육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서로의 장래 희망에 귀기울여주었던 어제의 그 친구들은 모두 3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오늘도 공간PLUS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고 있다. **추천**



《미래로부터의 반란-흔들리는 교육에 대한 감성적 고찰》
김진경 지음 | 푸른숲 | 264쪽 | 값 9,800원